

암수 2그루 중 암그루만 살아남은 은행나무



지정번호 홍성-8-63
지정년도 1982
관리기관 홍성
수령 790년
수고 27m
흉고둘레 7.1m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602
36° 33' 30.00" N
126° 39' 03.00" E

청광리 소반마을에 있는 보호수(홍성-8-63) 은행나무는 마을길의 가운데인지 농가의 마당 언저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곳에 우두커니 서 있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790년으로 짐작되는 큰 나무이다. 열매가 많이 달리는 암나무이다. 나무높이는 27m, 가슴높이둘레는 710cm, 밑동둘레는 80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3m정도이다. 은행나무는 원줄기의 3m 높이에서 몇 개의 가지가 갈라져 위로 자라고 있으며, 원줄기의 1.5m 높이에서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것과 맞물려 유주(밀으로 길게 자라는 혹)를 만들고있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은행나무 수나무와 관련한 내용이다. 소반마을의 은행나무는 원래 암수 한 쌍이 있었다. 땅주인이 크게 자란 수나무를 베어서 팔았는데, 얼마 후 잘 자라던 아들을 잃었다. 그 후에도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몹시 불안한 땅주인은 가정에서 좋지 않게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은행나무 수나무를 베어버린 탓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속인을 찾아갔다. 무속인은 땅주인을 보자마자

은행나무 수나무를 잘라 버렸기 때문에 자꾸 집안에 굿은 일이 생긴다고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무속인은 은행나무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제사를 지내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암수그루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베어낸 수나무의 그루터기와 남아있는 암그루 모두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다. 땅주인은 무속인의 말을 듣고 나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냈다. 그 뒤로는 집안에 이어지던 우환이 거짓말같이 없어졌다. 제사는 처음에 땅주인 혼자서 마련하였으나 점차 마을 사람들이 한두 집씩 함께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제사는 은행나무의 영험함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고,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 은행나무에 제를 올리는 때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정월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곳의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땅에 떨어진 가지조차 집에 가져가지 않는다.

